

# 다섯 손주 옷 뒤섞인 집, 옷장 두 개로 정리정돈

재능기부 스토리

조손가정에 생활용품 지원

통합으로 넓어진 공유, 지역 경계 넘는다  
내달 19일 공유의 날 베품시장 참여 모집

광주공유센터와 보성군 가족센터 간의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공유센터 이용 대상이 광주광역시 시민에서 전남광주 특별시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성군 가족센터와 협약을 맺고 공유문화 활성화와 공유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가족 대상 사업 수행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지원하고, 가족 건강성 향상과 가족 문제에 대한 통합적·예방적 서비스 연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성군 가족센터는 전남광주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6 행복마루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인자 센터장과 직원들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생활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가족친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결혼이주여성으로 시집과 동번역사로 근무하던 분이 팀장으로 승진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보성군 가족센터와 광주공유센터가 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나온 10년, 이어갈 내일 공유 광주!”

‘제10회 전남광주통합 공유의 날’ 행사에 함께할 베품시장 판매 부스를 모집합니다.

시민(개인) 접수는 유선으로 신청하며, 사업자 판매(문화누리카드 등록 희망) 접수도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 물품은 직접 만든 수제품이나 개인 소장품,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물품 등입니다.

제10회 광주 공유의 날은 2026년 9월 19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화산로 30 진월 국제테니스장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5학년 김모 군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군은 현재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 군은 4남매 중 막내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어머니가 4남매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김 군은 경제선지능장애로 심리검사 이후 상담지료를 받고 있으며, 방과후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 군의 가족은 원래 주택에 거주했는데, 최근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이 없는 월세 8만 원의 영구임대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좁은 주택에서 다섯 식구가 지내다 보니 생활하기 어려울 만큼 비좁았고,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 옷들이 바닥에 많이 놓여 있어 아이들이 자기 옷을 찾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광주 공유센터와 보성군 가족센터 (황인자 센터장)와의 업무협약식 체결.

이사한 집에서는 정리정돈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납용 행거와 공부에 필요한 책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주재능기부센터는 네 자녀가 옷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행거를 구입해 설치했고, 책상도 구입해 아이들 방에 설치했습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이사 후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정리정돈도 잘 돼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며, 특히 김 군은 심리적 안정감이 더해져 학교생활도 훨씬 잘하고 있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김 군의 가족이 새로운 터전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70대 김 모 어르신 가정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어르신 가정에는 외손녀 3명과 친손자 2명, 할머니까지 일곱 식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 씨 슬하에는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남매가 함께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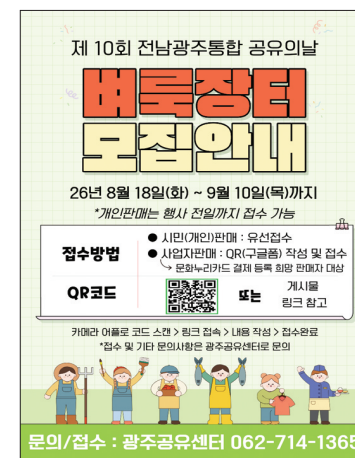
데 크게 부도가 나서 큰 빚을 안고 힘들어졌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아들과 딸 모두 이혼하게 됐고,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어지자 아이들을 김 씨 댁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할머니가 파킨슨병을 앓아 기저귀를 차고 계시오 식사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김 씨가 고생하고 있는 데, 손주 다섯 명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아니면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나 되는 손주들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식사 챙기기부터 빨래, 청소까지 노령의 몸으로 쉽지 않은 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아이가 취업해 수습 기간 중 출근해야 했는데, 옷들이 모두 섞여 있다 보니 자신의 옷을 찾다가 지각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손



아이들의 옷 정리를 위해 행거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5명의 손주들을 양육하고 있는 김 모 할아버지 집에 지원한 옷장.

주 옷을 함께 세탁하다 보니 옷이 모두 섞였는데, 따로 수납할 옷장이 없어 뒤섞인 옷에서 각자 옷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인별로 보관할 수 있는 옷장을 갖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옷장 구입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옷장 두 개를 구입해 남자아이들 방과 여자아이들 방에 각각 한 개씩 설치했습니다. 김 씨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옷을 세탁한 뒤 정리해 주고 싶었지만 옷장이 없어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옷장이 마련되면서 옷 정리 부담이 줄어들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자신의 옷을 빨리 찾을 수 있어 좋으며, 앞으로는 옷을 잘 정리정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씨가 아픈 할머니를 돌보는 상황 속에서도 다섯 손주를 양육하며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시기를 잘 극복해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  
▶문의사항 (기타 문의도 가능)  
“광주재능기부센터, 나눔 N JOY”  
전화 : 062-431-0918

##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글로벌